

철도용품 형식승인과 경제발전에 관한 고찰

A Study Concerning Type approval of Railroad Components and Economic Growth

이동훈^{*†}, 김영규^{*}, 서경수^{*}

Donghun Lee^{*†}, Young-gyu Kim^{*}, Kyoung-soo Seo^{*}

초 록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철도용품으로 지정된 부품들은 필수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용품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다양한 가치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철도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 철도용품, 형식승인, 철도산업, 경제발전, 안전

1. 서 론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철도용품으로 지정된 부품들은 필수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는 철도용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와 제작자의 품질관리 체계에 대하여 승인하는 제도이다.[1]

이러한 형식승인제도를 통해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더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형식승인제도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높아진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자금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투자를 포기하고 기술개발을 중단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처럼 형식승인제도가 철도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식승인제도가 철도산업과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고민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철도는 대량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따라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의 첫 번째 목적은 안전성을 확보하여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통과한 부품은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진행되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승객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은 안전의 가치를 더욱 높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2.2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의 부정적인 효과

철도용품을 제작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철도용품을 제작하는 기업들은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점은 국내의 철도시장에서 기업들

† 교신저자: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연구원
(aser26@seoulmetro.co.kr)

*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연구원

이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할 만큼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철도산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기술개발을 중단할 염려가 있다.

철도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와 지속적인 기술연구개발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는 철도산업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존재한다.

2.3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에 관한 고찰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명확한 장단점이 존재하고 상충하는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바라볼 수 없다.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점이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통하여 안전성이 향상되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안전성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어야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와 공공복리증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철도시장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유럽과 일본도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주도권을 빼앗긴 현 상황을 비추어보면 품질향상이 해외시장진출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제인지, 규제의 강도는 너무 지나치지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규제완화는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축소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혁신노력을 촉진함에 따라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규제가 느슨하면 공공안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규제가 과도하면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의 적정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3. 결론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의 도입은 철도시장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은 활발한 소통과 다각적인 시야를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용품 형식승인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철도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보았다.

국내의 철도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해외시장 진출도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정체된 철도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가치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성과 공공안전성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적정규제수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후 기

본 논문은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연구번호:18RTRP-B104247-04)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 [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2016), TYPE APPROVAL FOR RAILROAD SYSTEM, 2nd Edition, pp.1-4
- [2] The Bank of Korea(2008), The Effect of the Deregulation on Economic Growth, Vol.718, pp.59-99